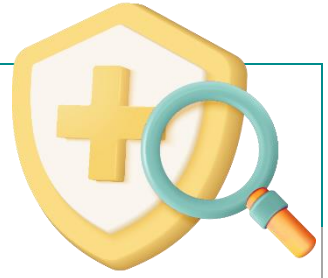


하나 Biweekly 제약/바이오(6월 중간)

제약바이오 Biweekly | 2026년 6월 17일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이벤트 비수기,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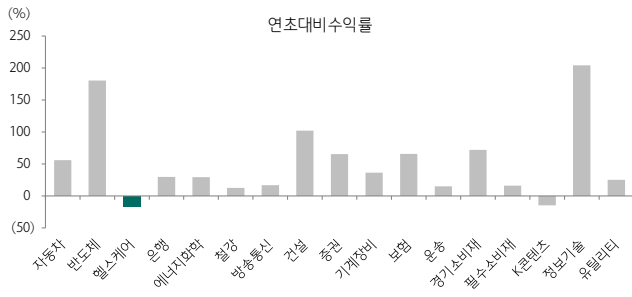
1) 2026년 6월 제약/바이오 산업 Preview

- Bio USA 이후 학회 비수기 진입, 기업별 R&D 데이 확인** 파트너십 행사인 6월22일 Bio-USA가 지나면 학회도 여름 휴가 기간으로 들어간다. Bio-USA에서 성과를 얻은 기업들은 복귀 후 신규 파트너십이나 기술이전 공시를 띄워줄 가능성이 있겠으나, 3분기는 기술이전도 비수기이므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텨야 한다 (5/21 발간 리포트, 도표 10번 참고). 따라서 7월에 R&D 데이 예정인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확인된 바로는 리가캠바이오, 올릭스 등이 R&D 데이를 개최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약품도 8월경 R&D 데이를 개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는 미정이다. 이러한 비수기에는 각 기업별 하반기 이벤트를 체크하고, 개발 현황과 경쟁사, 신규 기술 동향 등을 스타디하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반기 대형 학회는 9월 WCLC(세계폐암학회), EASD(유럽당뇨병학회)부터 시작되는데, 최근 폐암 파이프라인 또는 비만 치료제 개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만큼 높지는 않은 분위기라, 10월 ESMO(유럽종양학회)를 주목하고 있다. ESMO는 정규 초록 제출은 마감되었고,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Late-breaking abstract 제출 기간은 9월 8일, 수령 사전 통보가 9월 16일-18일 사이다. 따라서 ESMO 관련 기업에 대한 주가는 9월 중순 이후에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수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 이벤트로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다. 크게는 어떤 기업이 국민성장펀드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따라 프리미엄군을 나누는 조건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월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자회사인 비티젠(옛 에스티젠바이오)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리 대출을 받았는데, 두 기업 모두 CDMO를 주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한 조건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창출되면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을 보자면 알테오젠(hyaluronidase 자체 생산), 에스티팜(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등 CDMO) 등을 꼽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정책 펀드이므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부 순수 바이오텍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입하여 리스크가 분산될 수 있는 기업이 투자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시총 상위권 중에는 리가캠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코스닥 승강제 도입에 따른 프리미엄 등급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 기업을 배치하는데, 아직 개수와 조건이 불명확하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시행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하고 7월1일 코스닥 30주년 행사 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26년 6월 추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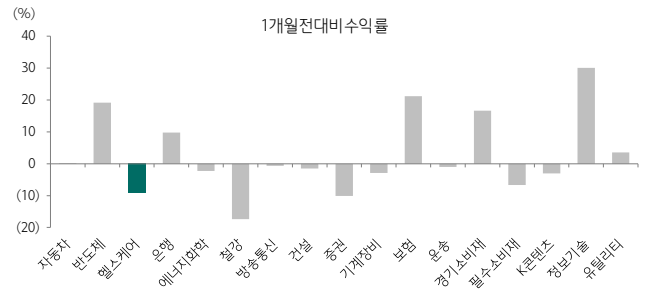
- 6월 코스피 Top pick(유지): 한미약품** 희귀의약품인 단장중후군 치료제인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illy향 기술이전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경쟁사의 MASH P2 결과로 반환 우려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기술이전 공시일인 6/1 이후 시총 약 1.5조원 하락하여 과도하다. 한미약품이 연간 가이던스로 “1건 이상의 L/O”를 내세운 만큼, 수요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다수이고, 한 파이프라인 당 여러 잠재 파트너가 존재하고, term sheet이 논의된 정도로 성숙한 수준으로 계약이 논의 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L/O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 6월 코스닥 Top pick: 알테오젠(변경), 올릭스(유지)** 1) 알테오젠은 Qlex의 WAC과 처방 수 성장세가 모두 관찰되어, 실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공개되는 시기에 동시에 코스닥 시장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주가 상승할 가능성 높다. CMS의 약가 인하 영향은 Qlex 로열티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일단락 정리되었다는 판단이다. 2) 올릭스도 로레알 계열 VC로부터 투자를 받았음에도 주가는 부진하다. 단순히 투자가 목적이었다면 105억원 보다 더 큰 규모였을 것이다. 그 작은 규모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그래서 더 기다려볼 가치가 크다.

도표 1. 섹터별 연초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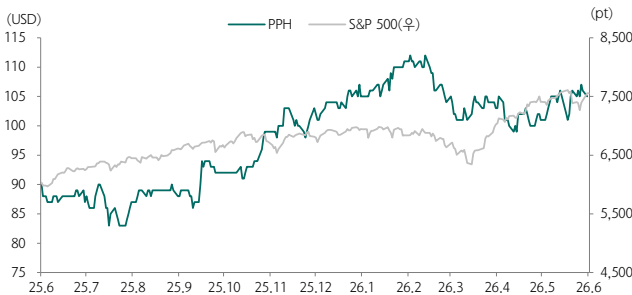
주: 6/16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2. 섹터별 1개월전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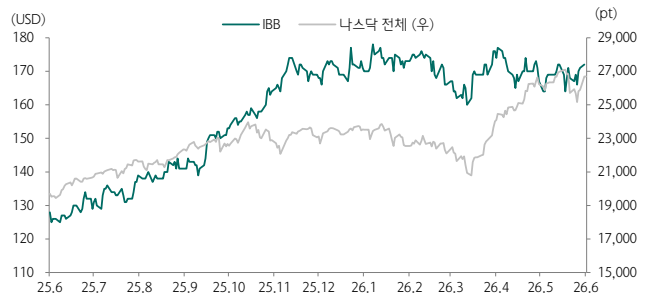
주: 6/16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3. VanEck Pharmaceutical ETF (PPH) 지수 (+S&P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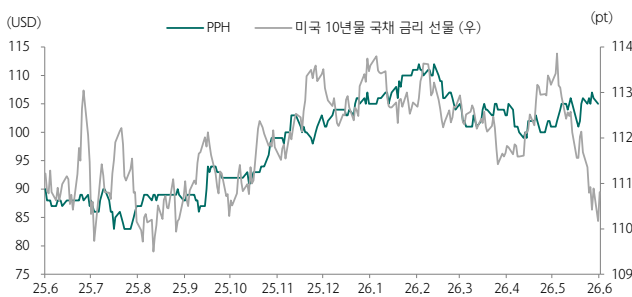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2.59%), Novartis(10.52%), MSD(9.52%), Novo Nordisk(5.87%), Pfizer(4.80%), Sanofi(4.29%), BMS(4.28%), GSK(4.19%), AbbVie(4.08%), AstraZeneca(4.0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iShares Biotech ETF (IBB) 지수 (+나스닥 전체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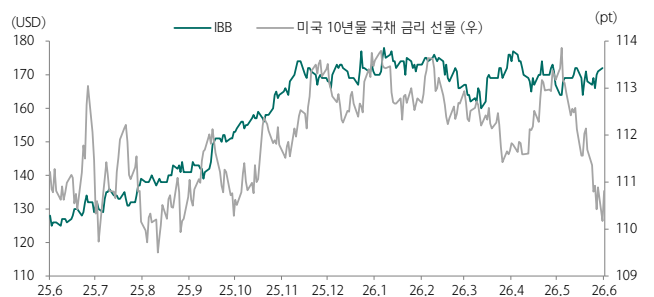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52%), Vertex(7.37%), Amgen(7.25%), Regeneron(5.93%), Alnylam(3.61%), Argenx(3.49%), Biogen(2.68%), Natera(2.48%), Revolution Medicines(2.44%), United Therapeutics(2.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PP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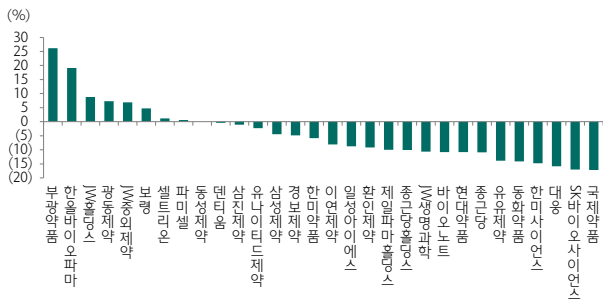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6.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선물과 IB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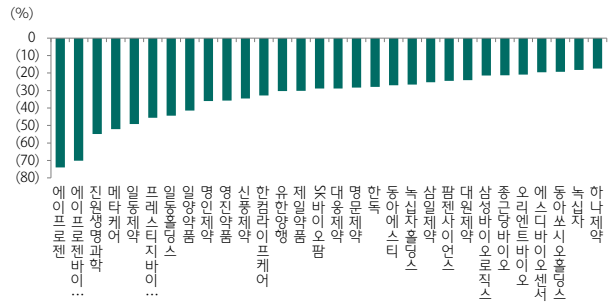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7.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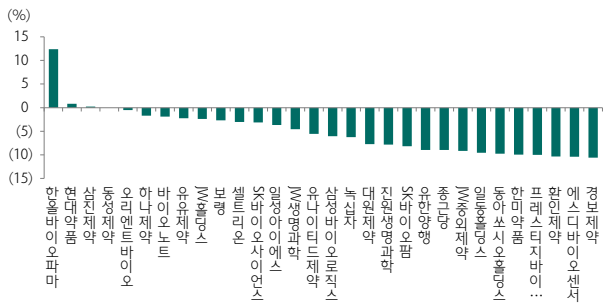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8. 코스피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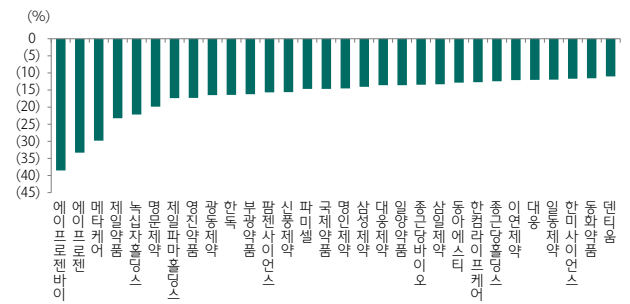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9.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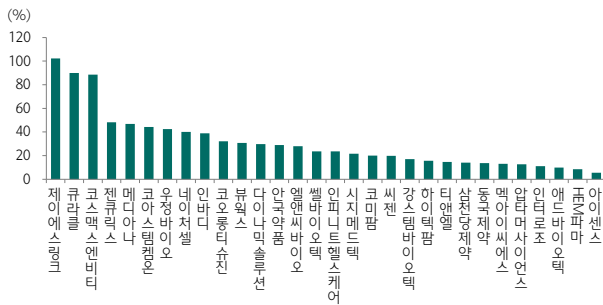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0. 코스피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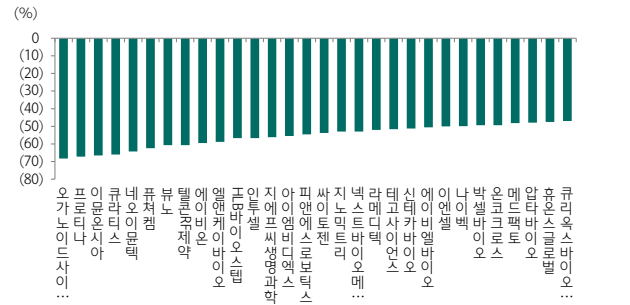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1.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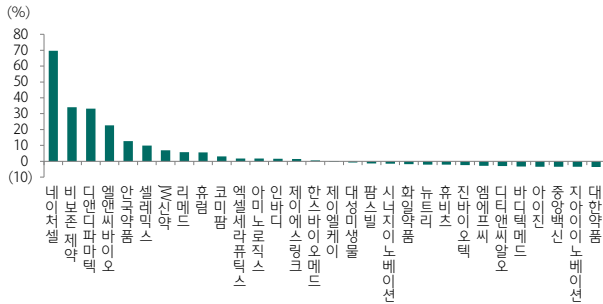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2. 코스닥 제약/바이오 연초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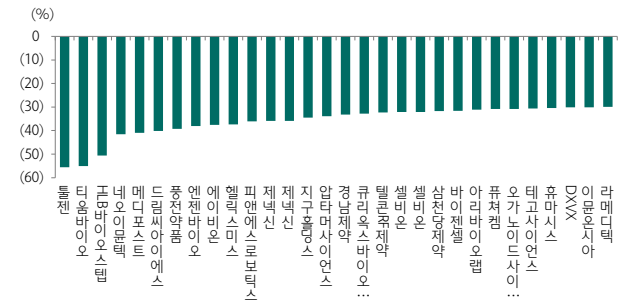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3.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상위 3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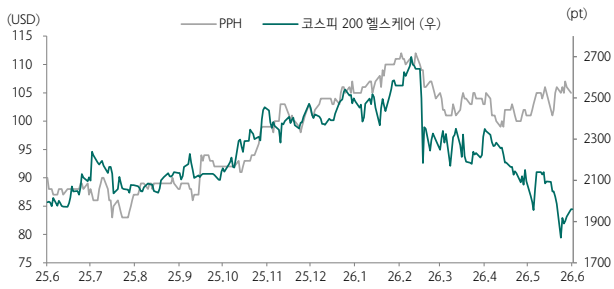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도표 14. 코스닥 제약/바이오 1개월전대비 수익률 순(하위 30개)



주: 6/15 종가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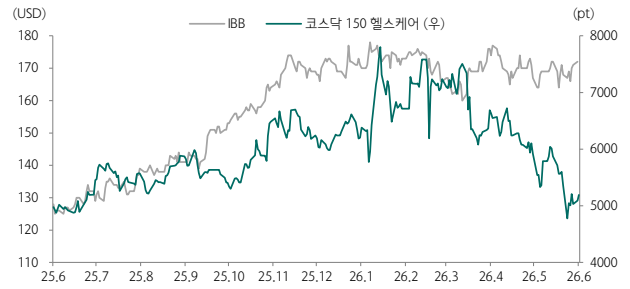
도표 15. 미국 제약사 ETF(PPH)와 코스피200헬스케어 비교



주: 6/15 종가 기준, 미국 상장 제약사 상위 25개 기업 선별 (수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Eli Lilly(22.59%), Novartis(10.52%), MSD(9.52%), Novo Nordisk(5.87%), Pfizer(4.80%), Sanofi(4.29%), BMS(4.28%), GSK(4.19%), AbbVie(4.08%), AstraZeneca(4.0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6. 미국 바이오 ETF(IBB)와 코스닥150헬스케어 비교



주: 6/15 종가 기준, Nasdaq Biotechnology Index (NBI) 추종 (시가총액 가중 방식)
 종목 비중(상위 10개): Gilead(7.52%), Vertex(7.37%), Amgen(7.25%), Regeneron(5.93%), Alnylam(3.61%), Argencx(3.49%), Biogen(2.68%), Natera(2.48%), Revolution Medicines(2.44%), United Therapeutics(2.2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지난 2주 간 주요 이슈 및 관련 기업 코멘트 (Biweekly 발간 기준일 6/1 이후)

[6/1] 한미약품-Lilly L/O, 오스코텍 L/O, 올릭스의 로렐알 등 투자 유치

- 한미약품이 Lilly에 단장중후군 치료제 소네페글루타이드(Sonefpeglutide; LAPS GLP2 agonist; HM15912)를 총 \$1.3B 규모로 기술이전 함. 선금금 \$75M(약 1,129억원),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1.185B (약 1조 7,844억원), 로열티 별도의 조건. 소네페글루타이드가 희귀질환 치료제이므로 시장 valuation에 반영된 바 없어 서프라이즈임. 현재 글로벌 임상2상 중으로, FDA, EMA,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FDA에서는 '소아희귀질환(RPD)' 및 '패스트트랙'으로도 지정함. 월1회 투여할 수 있어, GLP 계열 중에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가짐.
- 오스코텍도 미국 Agios Pharmaceuticals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세비도플레닙(Cevidoplenib)을 총 \$690규모로 기술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선금금 \$25M(약 375억원), 마일스톤 최대 \$665M(약 1조원), 로열티 별도 조건임. 세비도플레닙은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공동 연구개발한 선택적 SYK(Spleen Tyrosine Kinase) 억제제로 면역혈소판감소증(ITP)과 류마티스관절염(RA)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23년)한 상태. 기술료 수익은 오스코텍 75%, 제노스코 25%로 분배됨.
- 올릭스는 로렐알의 CVC인 BOLD를 포함하여 미국 자산운용사인 Weiss Asset이 운영하는 펀드로부터 약 1,100억원 투자 유치함. 유상증자 방식으로써 보통주 740,367주(발행가격: 149,599원, 4%) 발행. 이번 투자 유치로 피부 및 모발 관련 공동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영역의 siRNA 기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 나갈 것

[6/4~] 삼성그룹, 라이프사이언스 펀드 세 번째 추가 조성 (2천억원 규모)

-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 3호를 출범할 예정. 펀드 규모는 2천억원,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39.6%)/삼성바이오에피스(19.8%)가 공동 출자하고, 삼성벤처투자(1.0%)가 운용함.
- 지금까지의 투자 규모는 총 4,420억원 수준. 공개된 포트폴리오에는 12곳으로 미국 9곳, 한국·중국·스위스 1곳임. AAV 유전자치료제, 약물전달플랫폼, ADC, AI 기반 단백질 치료제, 알츠하이머 혈액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집행하였음. 국내는 에임드바이오 1곳 밖에 없음.

[ASCO 2026] Akeso/Summit, 1L 편평 NSCLC에서 ivonescimab의 PD-1+chemo 대비 OS 우월성 입증

- HARMONI-6 3상: 중국, 1차 치료 편평 비소세포폐암(sq-NSCLC) 환자 대상, PD-1 표적 항체인 tislelizumab+chemo와 비교 임상
- Ivonescimab+chemo는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 34% 감소 (HR 0.66, p=0.0017)하여 OS 우월성 입증. 그러나 중국 단독 임상인 점과 65세 이상에서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며 주가는 약 -10% 하락함

[ASCO 2026] Kelonia (Lilly), in vivo BCMA CAR-T인 "KLN-1010"의 첫 번째 human data 공개

- 재발/불응성 다발성골수종 대상 임상1상: ORR 100%, MRD(minimal residual disease)-negative도 100%. MRD(-)는 9개월 이상 지속 확인. 환자 18명 중 16명에서 CRS(사이토카인중후군)가 발생했으나 모두 1~2등급. 3등급 1건 발생.
- Kelonia는 2026년 4월 Lilly에 인수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최대 \$7B 규모. 현재 거대 완료를 앞두고 있음. iGSP(in vivo Gene Placement System)를 보유하고, 렌티바이러스 기반 전달체로 체내 T 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여 CAR-T 생성함.

[6/2] Legend Biotech도 in vivo CD19/CD20 CAR-T인 "LB2501"의 초기 데이터에서 DL2 ORR 100% 확인

- 재발성/불응성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R/R B-NHL) 대상 임상1상: 12명 중 고용량군 DL2 6명에서 ORR 100%(6/6), CR 83.3%(5/6) 달성. 용량 제한 독성 없음, 중대한 이상 반응 없음, 임상적 이상 반응 없음, 사이토카인 방출 중후군 2등급 미만으로 안전성도 양호.
- LB2501도 렌티바이러스 벡터인 TaVe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

[6/1] Lilly, 중국 제약사 Haisco와 신약 공동개발계약 체결 (최대 \$3.054B)

- 선금금 최대 \$87M + 마일스톤 최대 약 \$2.967B, 로열티 별도. 최대 5개의 Haisco 자산에 대해 글로벌 독점권 또는 중국 외 지역 독점권을 획득함. Haisco는 초기 연구 단계에서 신규 표적과 후보물질 발굴을 담당, Lilly는 비임상 개발과 임상시험, 글로벌 허가 및 상업화를 맡게 됨.

[6/7] Lilly, Ascidian과 RNA exon editing 신장질환 후보물질 발굴 계약 (최대 \$1.9B)

- 선금금 비공개. 비공개 희귀 유전성 신장질환 타깃에 Ascidian의 RNA exon-editing 기술을 적용. Pre-mRNA 단계에서 exon을 편집하는 trans-splicing 방식인 점은 알지노믹스 기술과 유사하지만, Ascidian은 체내 spliceosome을 이용하여 trans-splicing을 유도하는 것이 차이점.

[6/3] Regeneron, 항암제 개발사 CytomX와 공동개발계약 확대 (최대 \$4B로 확대함)

- CytomX는 추가 2개 타깃에 대해 \$37M의 선금금을 수령하고, 향후 개발 단계별 최대 \$4B까지 마일스톤 수령할 수 있음. 로열티 별도. Regeneron은 향후 최대 6개 타깃까지 선택 가능한 옵션 확보. 양사는 후보물질 발굴과 초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후 Regeneron이 비임상, 임상 개발 및 허가, 상업화를 담당하게 됨.
- '22년부터 CytomX의 PROBODY masking 플랫폼과 Regeneron의 Veloci-Bi 이중항체 플랫폼 결합하여, 중앙미세환경에서만 활성화되는 조건부 활성화 이중항체를 공동으로 개발해 왔음. 이번 계약으로 추가 표적 발굴과 파이프라인 확대할 것. PROBODY masking 플랫폼은 비활성 상태의 항체가 중앙미세환경에 존재하는 단백질분해효소(protease)에 의해 활성화되도록 함. 이로써 기존 T-cell engager 면역항암제의 한계로 꼽혀온 전신 독성과 off-target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Cold tumor까지 암종 확대 가능.

[6/6] Alnylam, AI 기반 신약 발굴 기업인 Inceptiva와 siRNA 후보물질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 (최대 \$2B)

- 현금 및 지분투자 형태로 선금금 \$30M 지불하고, 전임상 개발과 규제 승인, 상업적 판매 성과에 따른 마일스톤 포함 최대 \$2B 규모. Inceptiva는 염기서열기반 치료제를 설계하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공동설립자이자 CEO인 Jakob Uszkoreit는 신경망 아키텍처 Transformer의 공동발명자임.
- 국내에서도 '26년 4월에 siRNA 신약 개발사 올릭스와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갤럭시와 차세대 정밀 siRNA 치료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음.

[6/8] Roche, Nurix로부터 경구 BTK degrader인 bexobrutideg 인수하는 계약 체결 (최대 \$2.3B)

- 선급금 \$700M. '26년 중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3상 진입 예정임. Roche는 BTK 저해제 기전의 Fenebrutinib을 개발해 오고 있었고, '26년 4월 재발성다발성경화증 임상3상에서 SoC 대비 개선 효능을 확인하였으나, 투여군 중 8명이 사망하였고 약물 관련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2명이었음. 이번에 인수하는 bexobrutideg는 TPD이므로 양호한 안전성을 나타내길 기대함.
- Roche는 이전에도 TPD에 투자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는 C4 Therapeutics와 DAC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1B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6/8] J&J, KRAS 타겟 DAC 플랫폼 기업인 Firefly Bio 인수 (최대 \$1B)

- 선급금만 \$1B. Firefly의 Firelink 플랫폼을 적용한 DAC 모달리티 기반으로 KRAS 타겟 항암제 개발 목표. DAC 플랫폼은 촉매성 단백질 분해제(catalytic protein degrader)를 페이로드로 사용하고, 세포 내 '언드러그블(undruggable)' 표적을 분해하는 면에서 기존 항체 대비 강점을 가짐.
- DAC 개발에 뛰어난 빅파마는, MSD, Roche, BMS 등이 있음.

[6/9] Incyte, 출혈질환 신약 확보를 위해 Vega Therapeutics 최대 \$2B에 인수

- Vega Therapeutics는 Star Therapeutics 자회사임. 선급금 \$1.25B, 마일스톤 최대 \$750M. Vega의 핵심자산은 단일클론항체 'VGA039'로 유전성 출혈질환인 폰빌레브란트병(Von Willebrand Disease, VWD)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VMD-6' 임상시험 진행 중으로 결과는 '29년 초 예상. 폰빌레브란트병은 가장 흔한 유전성 출혈질환으로, 혈액응고에 필수적인 폰빌레브란트인자(von Willebrand factor)가 부족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여 과도한 출혈을 유발함. 현재 예방적 치료로서 폰빌레브란트인자(VWF) 단일제 또는 vWF/FVIII(혈액응고 8인자) 복합제제의 혈액응고인자 보충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고 주당 2~3회 정맥주사하여 환자 부담이 큼. VGA039는 월1회 SC 개발 중이라 개발 성공 시 시장성이 큼.

[6/9] Tango Therapeutics, PRMT5+RAS 췌장암 P1/2 초기 데이터 ORR 92% 달성

- PRMT5 저해제인 Vopimetostat의 췌장암 임상1/2 초기데이터 발표. 췌장암 2L, 3L로서 환자 12명에 대해 Revolution Medicines의 pan-RAS 저해제인 Daraxonrasib과 병용하여 투여한 결과 ORR 92% 달성. 2명이 unconfirmed 상태이나, 6개월 시점에서 PFS 90%로써 초기지만 유망한 효과라고 평가됨. DCR 100%. Tango는 해당 병용을 췌장암 1L로서 3상으로 진행할 예정

[6/9] GSK, 미국 항암제 개발사 Nuvalent \$10.6B에 인수

- 클래스 A 및 클래스 B 보통주 전량을 주당 124달러로 현금 매비 (전일 증가 대비 40% 프리미엄). 핵심 자산은 ROS1 억제제 지데삼티닙(zidesamtinib, NVL-520)과 ALK 억제제 넬라달킵(neladalkib, NVL-655). 모두 NSCLC 치료제로 개발 중이고, FDA PDUFA 일자는 각각 2026년 9월 18일, 11월 27일임.
- 이번 대규모 기술 인수는 주요 HIV 치료제 도루테그라비르(dolutegravir)의 특허 만료가 2028년~2030년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로 종양학 자산을 확보하는 움직임이라 해석되고 있음

[6/10] 삼성전자, 미국 DNA분석장비기업 Element Biosciences에 추가 투자해 1대주주 지위 확보

- Element에 시리즈E 투자에 참여해 \$175M의 추가 지분 투자 집행함. '24년 7월 이후 추가 지분 투자로 1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됨. 이번 투자 확대에 인한 경영권 변동은 없음.
- Element는 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된 회사로 DNA 시퀀싱 기술을 보유.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분야는 엘리먼트의 차세대 유전자 시퀀싱 기술과 '멀티오믹스(Multiomics)'. 멀티오믹스는 DNA뿐 아니라, 그 DNA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RNA-단백질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기술임. 삼성전자는 AI 역량, 의리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에 엘리먼트의 DNA 및 멀티오믹스 분석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유전자 진단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선점에 나갈 방침.

[6/10] Lilly, AlzeCure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 ACD860 최대 \$1B 규모 도입

- 선급금 \$10M, 마일스톤 \$1B 규모. ACD860은 저분자 화합물로, 감마-시크리타제 조절제(GSM). 병리적 Aβ42 생성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양성으로 평가되는 짧은 Aβ peptide(Aβ37, Aβ38 등) 단백질 생성을 늘리도록 설계
- AlzeCure Pharma는 스웨덴 기업으로 이번에 기술이전된 후보물질을 도출한 Alzstatin 플랫폼을 포함하여, NeuroRestore 플랫폼과 Painless 플랫폼을 보유. 알츠하이머, 통증 등 CNS 중증 질환 치료제를 개발함.

[6/10] Novartis, Orionis와 분자접착제 신약 발굴 목적의 공동개발계약 체결 (최대 \$1.8B 규모)

- 계약금 \$40M, 연구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을 최대 \$1.4B 수령할 수 있고, 로열티는 별도. Orionis은 AI 기반 신약 발굴 기업으로, Allo-Glue 플랫폼에 기반하여 분자접착제 신약을 개발함. Allo-Glue 플랫폼은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의 기능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분자 근접 메커니즘으로 물질 도출함.

[6/12~]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업별 기대감 약화 분위기

- 비만 치료제 후기 임상 업데이트 다수. Boehringer, Roche, Pfizer 등이 비만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나, 경쟁사 추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향
- Boehringer-Zealand의 survodutide에 대한 비만 3상 세부 분석 결과 공개. SYNCHRONIZE-1은 '제2형 당뇨병이 없는'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7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글로벌 임상3상. 76주차 평균 체중감량 -16.6% vs 위약 -3.2%로 위약 보정 후 13.4%로 이중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semaglutide 수준을 달성. 또한 0.3mg씩 titration 함에도 불구하고, 위약 보정 후 중단율 약 20%로 매우 높음. SYNCHRONIZE-1 결과는 비만 치료제 경쟁사에는 영향이 없었으나, 높은 중단율로 인해 MASH 경쟁사인 디앤디파마텍 주가는 급등함.
- Roche의 enicepatide(GLP-1/GIP, CT-388)에 대한 비만 2상 데이터 공개.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 469명 참여. 4~24mg 5개 용량과 위약을 비교했고, 최고용량 24mg 투여군에서 48주차에 평균 체중 22.7% 감소하여 단시간에 빠른 체중 감소율을 입증함. 48주차에 plateau에 도달하지 않아 추가 체중 감소 가능성 시사함. (Semaglutide 68주차 15%, Tirzepatide 84주차 25.5%, Cagrisema 84주차 23%) 치료 중단율은 위약 대비 4.6%로 준수한 수준.
- Pfizer도 Metsera 인수로 확보한 월 1회 GLP-1 비만 후보 berobenatide의 안전성 프로파일 공개(VESPER-3). 당뇨병 없는 과체중 또는 비만환자 대상 최대 12.3%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고, Wegovy 유사 GI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고 설명함. 해당 파이프라인은 월 1회 투여 약물인 점이 특이 사항.
- 한편, 미국에서는 약 10%의 대형 고용주들이 2027년부터 GLP-1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할 계획을 밝힘. 위고비,젠타바운드 등이 약가 인하했으나 경구 제형 출시로 환자와 장기 복용자가 늘면서 고용주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PBM 계약에서 기대만큼의 비용 절감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

도표 17. 2026년 주요 학회 일정 (추가 확인 후 Biweekly로 업데이트 됨)

월	개최일	학회명	약자	개최지	비고
6월	06월 05일	ADA (미국 당뇨병학회)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2026	New Orleans, LA	한미약품, 일동제약(유노바아), 동아ST, HK이노엔, 펩트론, 인벤티지랩, 지투지바이오, 프로타나
	06월 13일	ENDO (미국 내분비학회)	Endocrine Society ENDO 2026	Chicago, IL	에이프랄바이오
	06월 22일	Bio-USA (바이오 파트너십 미국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7월	07월 01일	ESMO GI Cancer congress (유럽 종양학회)	ESMO gastrointestinal cancers annual congress	Munich, Germany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07월 12일	AAIC (국제 알츠하이머학회)	Alzheim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UK	관련기업: 에이비엘바이오, 동아에스티, 큐라클, 오스코텍(아델)
9월	09월 12일	WCLC (세계 폐암학회)	2026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	Seoul, Korea	관련기업: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09월 28일	EASD (유럽 당뇨병학회)	62th 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Milan, Italy	관련기업: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HK이노엔, 대웅제약
10월	10월 12일	World ADC-USA (세계 ADC학회)	World ADC San Diego 2026	San Diego, USA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0월 23일	ESMO (유럽 종양학회)	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Madrid, Spain	관련기업: 한미약품, 리가캠 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 에스티큐브, 보로노이 등
11월	11월 04일	SITC (국제면역항암학회)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Phoenix, AZ	관련기업: 셀트리온, 한미약품, 에이비엘바이오, 지아이이노베이션, HLB이노베이션, 티움바이오, 메드팩토 등
	11월 09일	Bio Europe (바이오 파트너십 유럽 행사)	BIO International Convention 2026	Cologne, Germany	파트너링 행사이므로 다수 기업 참가
	11월 05일	AASLD (미국 간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Liver Diseases	Denver, CO	관련기업: 디앤디파마텍,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동아ST
	11월 14일	Obesity Week (비만학회)	Obesity Week2026	Washington, DC	관련기업: 한미약품, 디앤디파마텍, 올릭스, 동아ST, 대웅제약 등
12월	12월 04일	AES (미국 뇌전증학회 연례회의)	American Epilepsy Society 2026	Denver, CO	관련기업: SK바이오팜
	12월 16일	CTAD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Clinical Trials on Alzheimer's Disease	Boston, USA	관련기업: 오스코텍, 에이비엘바이오
	12월 12일	ASH (미국 혈액학회)	ASH Annual Meeting and Exposition	New Orleans, LA	관련기업: 오름테라퓨틱, 앵클론, 지씨셀, 네오이문텍 등

주: "관련기업"은 '25년에 참가했거나 파이프라인 상 관련은 있으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자료: 하나증권

도표 18. 국내 주요 제약사 실적 컨센서스(2026.06.16 기준, 다음 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모두 상승시 음영 표시)

(단위: 십억원)

기업명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2Q25	1Q26	2Q26F	2025	2026F	2Q25	1Q26	2Q26F	2025	2026F
셀트리온	38,675	961	1,145.0	1,249.6	4,162.5	5,304.0	242.5	321.9	402.2	1,168.5	1,762.7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61,706	1,588.6	1,257.1	1,324.3 (F.1,264.2)	4,557.0	5,427.3 (F.5,342.9)	532.1	580.8	592.6 (F.581.1)	2,069.2	2,505.1 (F.2,421.0)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11,284	nr	453.9	434.4 (F.434.4)	251.7	1,858.7 (F.1,858.7)	nr	90.6	68.5 (F.68.5)	-63.6	429.0 (F.429.0)
유한양행	6,236	579.0	526.8	626.5	2,186.6	2,345.1	49.9	8.8	63.1	104.4	134.0
녹십자	1,519	500.3	435.5	502.8	1,991.3	2,038.7	27.4	11.7	21.0	69.2	74.7
한미약품 (TP: 710,000원)	5,451	361.3	392.9	389.4 (F. 402.9)	1,547.5	1,657.5 (F. 1,698.1)	60.4	53.7	63.6 (F. 55.7)	257.8	274.9 (F. 259.6)
대웅제약	1,422	405.5	377.8	415.1	1,570.9	1,647.1	57.9	22.2	49.3	196.8	198.3
HK이노엔	1,197	263.1	258.7	275.5	1,063.2	1,110.1	19.5	33.2	31.4	110.9	130.3
종근당	1,020	434.9	447.8	473.0	1,692.4	1,864.7	23.6	14.1	21.3	80.6	82.7
휴온스글로벌	340	212.7	197.0	nr	847.5	nr	25.3	9.2	nr	90.6	nr
동아에스티	356	194.0	203.6	205.7	808.8	837.0	-5.8	7.8	8.4	0.6	38.0
보령	810	251.5	255.4	257.6	1,017.4	1,057.7	25.4	20.2	20.9	65.1	80.2
SK바이오팜 (TP: 150,000원)	6,946	176.3	227.9	234.4 (F. 224.5)	706.7	958.7 (F. 929.3)	61.9	89.8	85.0 (F. 76.1)	203.9	337.7 (F. 302.6)
동국제약	882	233.5	251.0	266.9	926.9	1,061.9	22.1	27.3	27.2	96.6	115.4
에스티팜 (TP: 150,000원)	2,590	68.3	67.0	98.9 (F. 109.2)	331.7	414.7 (F. 418.3)	12.9	11.5	17.3 (F. 16.3)	54.9	76.5 (F. 73.9)
셀트리온제약	1,958	131.3	132.1	nr	536.4	nr	15.5	12.9	nr	56.1	nr
JW중외제약	635	191.1	199.9	nr	775.3	nr	25.0	33.6	nr	94.5	nr
일동제약	620	138.5	142.0	143.7	566.9	579.3	0.6	9.2	11.2	19.5	38.9
대원제약	204	143.9	158.1	153.3	605.4	636.3	-1.4	4.4	4.9	3.5	22.0
제일약품	156	137.6	130.3	nr	567.2	nr	4.7	0.4	nr	20.7	nr
삼천당제약	6,216	56.9	64.9	nr	231.8	nr	-1.1	5.5	nr	8.5	nr
바이넥스	263	44.5	35.3	49.2	168.5	186.1	1.0	-9.0	-0.5	-4.5	-4.4

주1: 1Q26→2Q26F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종목은 녹색 음영 표시

주2: Coverage 종목의 Forecasting은 "F."으로 표시

주3: 시총 상위 종목 중 지주사, 60% 이상의 매출이 의료/미용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인 종목 등은 제외

자료: QuantWise, FnGuide, 하나증권

Coverage 및 관심 종목 월간 코멘트

삼성바이오로직스 (TP 2,050,000원, 유지): 노조 분쟁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해 2Q26 실적 발표 시 확인되어야 함

- '26년 가이드언스: 매출액 +15~20% (원/달러 환율 1,400원), 미국 록빌 공장 인수에 따른 매출 기여분은 미반영. 이익 가이드언스는 제시하지 않음.
- '26년 1분기 실적: 매출액 1조2,571억원(YoY+25.8%), 영업이익 5,807억원(YoY+35.1%, OPM 46.2%). 1Q 내 록빌 공장 인수 마무리되었으나, 가이드언스를 조정하지 않음.
- 한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 및 추가하락은 불가피할 것. CAPEX 확대나 가이드언스 상향은 3분기로 예상하였으나, 총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과 생물학적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비용 증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2Q26 실적 확인이 필요(7월 초 예상).

삼성에피소홀딩스 (TP 620,000원, 유지): 서프라이즈, 이 다음 지켜볼 사업 확대 (변동 없음)

- '26년 가이드언스: 바이오에피스 기준 매출액 +10% 이상, OPM 20% 이상 유지.
- '26년 1분기 실적: 매출 4,549억원(YoY+14%), 영업이익 1,440억원(YoY +13%, OPM32%). 영업이익률이 연간 가이드언스(20% 유지)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은, 이번 분기에 Biogen 향으로 SB4(엔브렐BS)의 유럽 판권 연장에 따른 마일스톤 473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일시적). 추가 마일스톤은 3분기 예상.
- 에피소홀딩스는 연간 1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의 IND 신청을 목표로 하나, '26년은 없을 것으로 예상. 최근 중국에 R&D 자회사인 "Samsung Bioepis China" 설립하고, 순수 연구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을 밝힘.

알테오젠 (TP 580,000원, 유지): Qlex 처방 수 및 매출은 4월 및 5월 연속 증가 중, CMS,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여부

- 할로자임의 특허무효심판(PGR)은 최종 무효 심결로 종료. 남은 14개도 패밀리 특허도 순차적으로 무효 심결로 종결되는 분위기. 독일 특허무효예비판결에 따라 가져분 명령 취소 외에 영국은 STAY, 네덜란드 및 프랑스도 무효 심판 청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분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12월 옵션 계약한 건의 본계약 기대 중. Keytruda Qlex의 J-Code 효과(보험청구가능)로 TRx와 WAC 모두 MoM 성장세 확인됨(TRx 3월→4월 72.8%, 4월→5월 42.9%). 한편, CMS 가이드언스에서 메디케어 가격 협상 품목으로 Qlex가 해당될 가능성 높아짐. 다만 적용시점은 2029년 이후이고, Qlex의 로열티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낮아져 있고 valuation에는 sales milestone이 미치는 현금흐름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시장 타격은 높지 않은 분위기.
- 그보다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 연기 또는 철회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코스닥 부양 정책 수혜를 받을 가능성 높음. 코스피 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현재의 시가총액 상 코스피 내 비율은 0.3~0.5%에 불과함. 7월1일 코스닥 30주년 행사 등 활성화 방안이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에 회사의 결정을 알릴 것으로 예상

한미약품 (TP 710,000원, 상향): Lilly 향 기술이전으로 서프라이즈, 이벤트 더 남아 있을 것

- '26년 가이드언스: 매출액 10% 이상 성장, 이익률 15% 이상 달성, 기술이전 1건 이상 달성
- '26년 1분기 실적: 연결기준 매출액 3,929억원(YoY+0.5%, 컨센 3,908억원), 영업이익 536억원(YoY-9.1%, OPM 13.7%, 컨센 585억원)로, 매출(-1.2%)과 이익(-10.9%)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
- 추가에는 6월1일 소네페글루타이드의 Eli Lilly향 기술이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 기술이전 1건 이상이라는 가이드언스가 이미 달성되었으나, 논의 중인 파이프라인이 많으니 하반기까지 추가 L/O 기대감 유지. 우선 근육종양제 MH17321의 임상1상 SAD 데이터 공개가 7-8월 중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3Q 기술이전 가능성 높다는 의견을 유지함.

SK바이오팜 (TP 150,000원, 유지): 수노시 미국 특허소송 종결, 2nd 프로덕트 도입 이후 주목받을 가능성 높음

- '26년 가이드언스: 엑스코프리 US 550mn~580mn\$(YoY+29%, 환율 1395원/달러), 기타매출 1,100억원(YoY+44%). 신약 후보물질 5개 이상 추가됨에 따라 R&D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이드언스 상 연간 예상 판관비가 5,700억원으로 증가(R&D만 전년 대비 550억원 증가)
- '26년 1분기 실적: 매출 2,279억원(YoY+57.8%, QoQ+17.2%), 영업이익 898억원(YoY+249.7%, QoQ+94.0%, OPM39.4%)으로 각각 컨센서스 대비 7.0%, 24.7% 상회
- 수노시(솔리암페톨; 기면증 등 수면 장애 개선)의 제네릭 개발사와의 미국 소송 종료됨. 제네릭 판매 개시 시점은 2040년 이후로 합의됨(소아 독점권이 부여될 경우 2040년 9월 1일 이후, 부여되지 않을 경우 2040년 3월 1일 이후부터 수노시 제네릭을 판매). 전체 매출에서 수노시 비중이 낮아(전체 매출 5% 미만으로 추정) 추가에는 큰 영향은 없는 듯하고, 추가는 2nd 프로덕트 도입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리가캠바이오 (TP 220,000원, 유지): 7월 초 R&D 데이 개최 예정

- 상반기 기술이전이 부재한 상황이나, '26년은 Ono(LCB97), SOTIO, IKSUDA의 신규 임상1상 진입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 가능성 높음. 상반기 데이터 발표를 미룬 파트너사들 대다수 하반기(10월 ESMO, 12월 ASH 등)에 업데이트가 있을 가능성 높아,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하반기 Top pick을 계속 유지함.
- 7월 초 R&D 데이를 개최하여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R&D, 기술이전 등 전략을 공개할 예정. 하반기에는 1) HER2 ADC (LCB14)의 중국3상 최종 결과 확인 및 글로벌 임상1b의 Enhertu 내성 유발암 환자를 포함한 중간 결과 발표, 2) ROR1 ADC (LCB71)의 임상1b 추가 코호트 중간 결과 발표, 3) CD19 ADC (LCB73) 임상1a, B7-H4 ADC (LNCB74) 임상1상 중간 결과 발표할 예정. 4) TROP2 ADC (LCB84)의 임상1/2상 업데이트가 있다면 추가에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디앤디파마텍 (Not Rated): MASH 기술이전과 비만/CNS 신약의 파트너십 성과도 기대

- 5/27일 MASH 치료제 DD01의 임상2상 48주 간 생검 결과는 성공적. Boston Therapeutics는 GSK에 Efimosfermin을 약 3조원 규모에 매각한 사례가 있음. M&A 사례로 Novo Nordisk가 Akero를 인수할 때 최대 7.8조원 규모, Roche가 89bio 인수할 때 최대 5.3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아직 추가 upside가 충분하다는 판단. 기술이전 시기는 글로벌 자문사에 confidential deck이 전달된 후 절차가 진행됨을 고려했을 때, DD와 Term Sheet을 논의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4Q26~1Q27로 추정.
- MASH 기술이전 전에는 Pfizer와의 경구용 펩타이드 제형 개발 관련 협력 강화와 NLY02 (퇴행성 신경질환 타깃, RIPK2 선택적 저해)에 주목. NLY02는 공동개발사 퍼스트바이오가 5~6월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하는 계획을 미뤘는데, 기술이전 시기가 미뤄졌기 때문이라 판단함(기술이전 없이 상장 어려운 분위기). 퍼스트바이오의 코스닥 예비심사청구시기를 주시할 것.

지아이이노베이션 (Not Rated): 5월 ASCO GI-101/101a 발표 성공적, 3Q에 102 단독 투여 임상도 발표할 것 (변동 없음)

- GI-101/101a 단독 및 키트루다 병용 1상 (표준치료 실패 환자 단독 36명, 병용 48명 등록) 데이터 발표: 단독의 경우 면역항암제 치료 경험이 있는 방광암 환자 PFS 13.9개월 (vs. 파드셉 PFS 6개월)/ 신장암(n=10)에서 ORR 40%, DCR(질병통제율) 70% 확인, PFS 미도달/ 면역항암제 내성 극복 가능성 입증하였고, 4차 이상으로 투약 중이나 ORR 40%를 달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는 판단. 현재 2상 준비 중
- GI-102: ①SC 단독 투여 1b상, ②GI-102+키트루다 투약 2a상, ③GI-102+엔허투 투약 2a상에 대해 '26년 내 임상 발표 예상. ①번 단독 투여 1b상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환자 50명 예상), 임상 종료 후 Top line 확인되는 대로 공시가 있을 것이니 학회 일정과 무관하게 R&D 타임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3Q 예상).
- 유한양행에 기술이전된 GI-301의 임상2상(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150명 대상, 12주간 약물군 및 위약군으로 투약하고, 한국/유럽/아시아 국가에서 다국가 임상 진행 계획)도 순조롭게 환자 모집 중이고, 기술이전도 꾸준히 시도 중.

인투셀 (Not Rated): 본계약 또는 마일스톤 수령 이벤트 대기 중 (변동 없음)

- 에픽스홀딩스가 Nxt3를 적용한 ADC를 방광암에 대해 임상1상을 진행하기 위한 IND를 12월2일 FDA 신청하여 승인됨. OHPAS 링커와 공동개발한 Nxt3 적용되었음에도 옵션 행사에 따른 본계약(또는 프로덕트 딜)을 체결이나 마일스톤 등 이벤트가 없는 것이 추가 부진한 이유로 판단.
- 자체 개발 중인 신약에 대해 국내와 미국에 임상1상 IND도 승인된 상태로, Duocarmycin을 적용하여 Nxt3 없이 OPHAS 링커의 기술력을 입증할 전망이나 주목할 가치가 높음. 회사는 새로 꾸려진 BD팀을 통해 Bio-Europe, Bio-China, Bio-USA 등 상반기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하여 꾸준히 기술이전을 시도할 것.

셀비온 (Not Rated): 첫 투약 7월로 조정, 키트루다 병용 성과가 다음 기대할 이벤트

- 5월 ASCO에서 공개된 데이터 요약: 총 91명의 환자 등록, 3L 이상의 PSMA에 대한 결과로 전체 환자군에서 mOS 13.31개월, 중앙 rPFS 11.04개월 확인됨. VISION 연구에서 mPFS 8.7m, mOS 15.3m였음을 참고. 그러나 VISION 연구는 SoC 투약을 허용한 반면, Lu-Pocuvotide는 더 이상 표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 또한 림프구 부착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키트루다 병용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판단. 또한 폐전이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더욱 약효가 강하게 나타남. rPFS 차이가 PCWG3-modified 기준에서만 유의하게 관찰되어, 골 전이가 흔한 mCRPC에서는 PCWG3-modified 기준으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키트루다 병용 임상(국내) 1상 IND 승인받았고, 첫 투약 시기 7월로 조정. mCRPC 환자 30명 대상 pre-Taxane 대상 임상하여 2L 진입 노릴 것. 키트루다는 연구자 임상에서 플루빅토와 병용 투여 시 플루빅토 단독 투여 대비 mOS를 추가 12.9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Lu-Pocuvotide는 P2에서 플루빅토 대비 낮은 혈구 독성을 보였기 때문에 키트루다의 효능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

펩트론 (Not Rated): 본계약을 기다리며 (변동 없음)

- 테레파타이드(추정) 제형에 대한 본계약 진행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 물질 제형화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음. 지금까지의 소통 상황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 볼 것을 제안함.
- 그 외 루프원의 국내 시판 허가에 기반한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중.

인벤티지랩 (Not Rated):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완료, 3Q 본계약과 CDMO 매출 기대 (변동 없음)

- 베링거인겔하임에 전달받은 후보물질에 대한 두 번째 제형도 개발하여 전달하였고, 첫 번째 제형에서 확인된 스케줄 대로라면 2Q26 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기대하는 타임라인대로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 3분기에 본계약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음.
- 유럽 소재 파트너사와 제조 생산 시설 구축 투자금을 포함하여 위탁생산계약을 논의 중(2가지 품목, 수백억원/년 규모 예상). 유럽 현지 site로의 Scale-out도 함께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안정적인 Cash 창출은 물론, CDMO 기술과 Scale 확장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지투지바이오 (Not Rated): 에피스와 공동개발계약 체결로 높아진 기대감 (변동 없음)

- 1,500억원 규모의 CPS/CB 자금 조달에 성공(발행일 2026년3월23일). CPS 750억원, CB 75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의 CB 200억원 투자도 이어짐.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스넥스랩, 지투지바이오 간의 3자 계약도 체결함 (장기지속형의 Semaglutide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
- 4/20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였고, Semaglutide 독점 개발계약에 따라 글로벌 빅파마와의 공동개발 논의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음.

에스티팜 (TP 210,000원, 유지): 아주 좋은 시작, 기대할만한 한 해 (변동 없음)

- '26년 1분기 실적발표: 연결 기준 매출액 670억원(YoY+27.7%), 영업이익 115억원(YoY+1024.6%, OPM 17.2%)으로,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 -4.7% 하회(703억원)하였으나 이익은 30.7% 상회(88억원)하여 서프라이즈
- 현재 분기별 수주 잔고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고, 매출 4Q>2Q>3Q>1Q 예상, 상업화 물량 높아져 영업이익을 안정화 효과 확인하였으므로, '26년 영업이익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하반기 CAPEX 확대 소식도 있을 예정으로 연간 기대 요소 다수.
- 올해 하반기 고객사 2곳(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임상3상 탑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동시에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도 주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음. 탑라인이 성공적이라면 '27년 상업화 물량 수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HIV 신약 후보물질인 Pirmitegravir의 임상2a상 최종 결과 발표도 3Q26에 있을 것으로 예상.

울릭스 (Not Rated): 로레알의 SI 투자로 협력 관계 더욱 공고해짐 (변동 없음)

- 6/1일자, 로레알(L'Oreal)그룹 산하 VC 펀드인 BOLD(Business Opportunities for L'Oreal Development)에 약 105억원(70,367주), 미국 브룩데일 글로벌 오퍼튜니티 펀드(Brookdale Global Opportunity Fund), 미국 브룩데일 인터네셔널 파트너스(Brookdale International Partners)에 각각 651억원(435,500주), 350억원(234,500주)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결정 (1년 간 보호예수). 로레알의 SI 성격인 BOLD의 투자 규모가 100억원 대에 불과하여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은 듯 하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보다는 더 큰 규모로 투자를 감행했을 것이라 판단. 이번 투자 뒤에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개발 성과나 추가 계약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한편 Lilly와 MASH/비만 치료제 개발 계약에 따른 추가 성과를 기대(Lilly의 옵션행사). 시장 규모가 큰 일반 질환을 타겟하고 있으므로, 개발 단계 상승 및 추가 옵션 행사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력은 매우 크다는 판단.
- 최근 지방세포를 직접 타겟하는 OLX501A를 선보였고, 비만원숭이 데이터가 6/22일 Bio-USA가 끝난 후 7월 14일 투자자에게도 공개될 것이니 기대할 것

알지노믹스 (Not Rated): FDA로부터 RMAT 지정 (변동 없음)

- 최근 Regeneron이 FDA로부터 세계 최초로 난청 유전자 치료제인 "Otarmen (AAV 기반)"을 승인 받으며 인공 와우를 대체할 치료제 등장함. Lilly도 최근 동향을 보아 유전자치료제 및 청력 상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Lilly와의 협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
- 한편 4월 AACR에서 임상1상 중간결과 공개한 간암 치료제 RZ001가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패스트트랙에 이어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지정도 획득함. RMAT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예비임상 결과를 통해 미충족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에, 최근 임상2상 중간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짐. mRECIST 기준 ORR 61.5%, CR 23%/ RECIST 기준 ORR 38.5%(confirmed), 46.2%(unconfirmed). 향후 장기 추적으로 종양 사이즈만 보는 RECIST가 종양 내 괴사를 표현하는 수치인 mRECIST에 가까이 도달하는 것을 기대함.

도표 19. Coverage 및 관심 종목의 2Q26-3Q26이벤트(2026.06.16 증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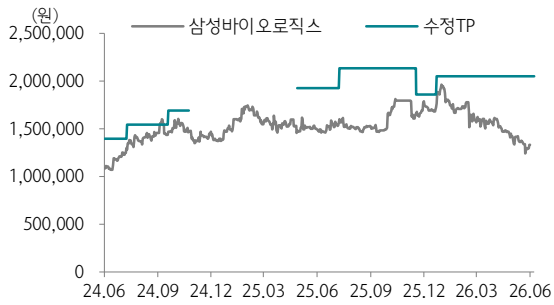
(단위: 원)

기업명	TP	주가	상승 여력	2Q26	3Q26	비고
삼성바이오로직스	2,050,000	1,332,000	53.9%	• CAPEX 확대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가이드스 상향 기대 • 7월 초 1Q26 예상실적발표	• CAPEX 확대: 미국 록빌 공장 또는 6공장 증축
삼성에피소홀딩스	620,000	451,500	37.3%	• -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자회사 확대, 학회 발표 등 주목
알테오젠	580,000	349,000	66.2%	• 독일 가처분신청 예비판결	• 코스피 이전 상장(3Q말~4Q 전망) > 계획 변경 가능성 있음	• 2Q26 내 작년 12월 옵션 계약 건의 본계약 체결 기대 • J-code 발표로 인한 처방 수 및 WAC 상승 확인됨(4월부터 MoM 상승 중)
한미약품	710,000	420,500	52.2%	• -	• 2Q26 실적발표 7월 초 예상 • HM17321(근육증가)의 SAD 데이터 공개 • 에피노페그듀타이드(MASH) P2b Top line 발표 • 에페글레나타이드 국내 허가	• 6/1 소네페글루타이드의 L/O로 가이드스 달성하였으나, 추가 L/O 전망 • 3Q26 내 MASH 학회 발표하는 경우 9/28 EASD 유력 (간 질환 주요 학회는 11/5 AASLD)
SK바이오팜	150,000	90,200	66.3%	• -	• 2Q26 실적발표 8월 초 예상	• 2 nd Product 도입 기대
리가컴바이오	220,000	132,800	65.7%	• -	• L/O 1건 이상 체결 기대	• 각 파트너사의 개별적 R&D 성과 공개 기대 • 임상 단계 상승 예정 파트너(마일스톤 수령): Ono(LCB97), SOTIO, IKSUDA • 10월 ESMO 참석할 파트너십은 9월 중순부터 확인될 것(LBA 채택, 초록 공개 등)
에스티팜	210,000	123,800	69.6%	• 6/30 고객사 (고중성지방혈증) FDA 승인	•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 Pirmitegravir 2a상 데이터 발표 • CAPEX 확대	• 하반기 고객사 2곳 3상 탐라인 발표 기대(동맥경화증, 만성B형간염)
디앤디파마텍	NR	82,500	-	• -	• NLY-01 L/O 기대	• Pfizer와의 비만 개발 현황 업데이트 • DD01(MASH) L/O는 4Q26로 예상
지아이이노베이션	NR	11,890	-	• -	• GI-102 SC제형(단독) P1b 결과 발표	• GI-102: SC제형(단독) P1b, 키트루다 병용 P1/2, Enhertu 병용 P2a 진행 중 (단독은 1H26, 그 외 '26년 내 데이터 확인 예상) • GI 301: 유한양행 공동개발
올릭스	NR	120,800	-	• -	• ALK7 비만 치료제의 원숭이 데이터 공개 (7월 예상) • Lilly의 옵션 행사	• 파트너십의 추가 투자: 릴리, 한소제약 (로레알의 추가 투자는 6/1 달성)
알지노믹스	NR	88,700	-	• 신규 L/O 기대	• -	• -
인투셀	NR	24,900	-	• 본계약/마일스톤 수령 등	• -	• 학회 발표 보다는 파트너십 행사를 통한 L/O 논의(Bio-USA/ Europe/ China 등)에 집중할 것
셀비온	NR	18,050	-	• -	• 국내 조건부허가 승인(GIFT)	• 키트루다 병용 투여에 따른 기술이전 기대감 보유 (P1 중간결과 확인이 가능한 1H27 이후 예상)
펍트론	NR	231,500	-	• Lilly와의 본계약 기대	• -	• Lilly와의 평가기간은 정정된 공시 상 최대 '26년 10월7일로 연기됨
인벤티지랩	NR	46,000	-	• 신규 L/O 기대	• BI의 제형에 대한 피드백 기대	• 26년 내 글로벌 빅파마 또는 지역 파마로 1건 이상 기대
지투지바이오	NR	45,350	-	• 신규 L/O 기대	• -	• -

자료: 각 사, 하나증권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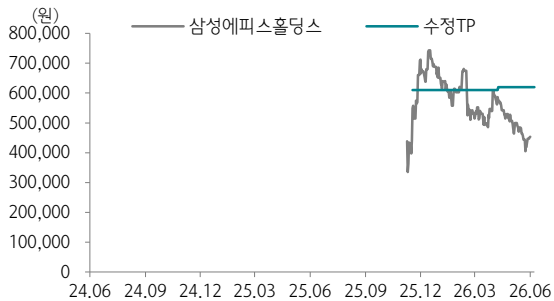
삼성바이오로직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7	BUY	2,050,000		
25.12.3	BUY	1,860,000	-8.44%	-3.76%
25.7.24	BUY	2,134,029	-24.69%	-15.03%
25.5.13	BUY	1,927,985	-21.56%	-16.03%
25.4.16	담당자 변경		-	-
24.10.4	BUY	1,692,506	-10.08%	3.04%
24.7.25	BUY	1,545,331	-7.83%	3.52%
23.10.5	BUY	1,398,157	-18.88%	-7.0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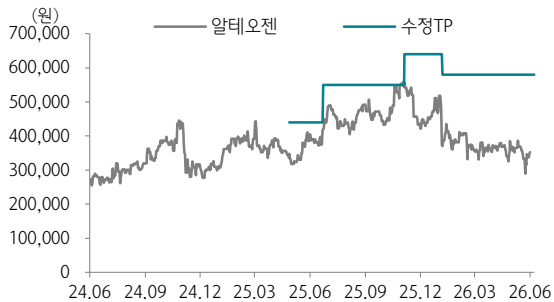
삼성에피스홀딩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24	Neutral	620,000		
26.2.9	Neutral	610,000	-8.06%	11.64%
25.12.3	BUY	610,000	5.08%	21.8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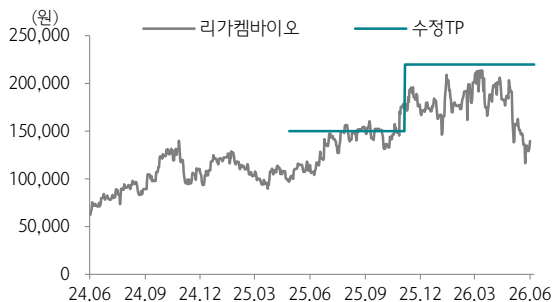
알테오젠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2	BUY	580,000		
25.11.20	BUY	640,000	-26.04%	-15.31%
25.7.8	BUY	550,000	-14.86%	1.64%
25.5.13	BUY	440,000	-16.59%	-5.23%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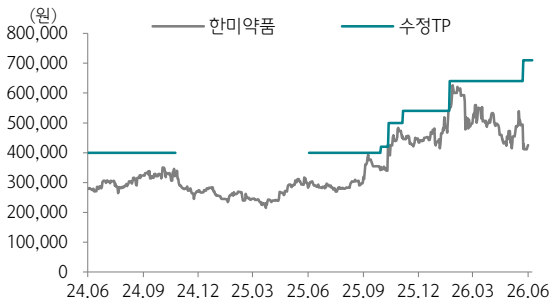
리가캠바이오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5.11.21	BUY	220,000		
25.5.13	BUY	150,000	-8.77%	19.00%
23.11.16	Not Rated	-	-	-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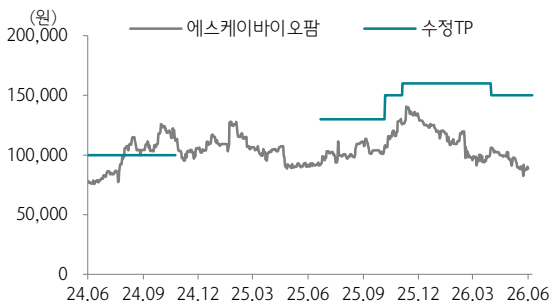
한미약품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6.8	BUY	710,000		
26.2.6	BUY	640,000	-20.20%	-2.19%
25.11.21	BUY	540,000	-15.90%	0.19%
25.10.28	BUY	500,000	-10.58%	-3.40%
25.10.15	BUY	420,000	-15.30%	1.90%
25.6.18	BUY	400,000	-24.18%	-1.75%
25.6.9	Not Rated	-	-	-
25.4.16	담당자 변경	-	-	-
24.1.10	BUY	400,000	-26.21%	-11.75%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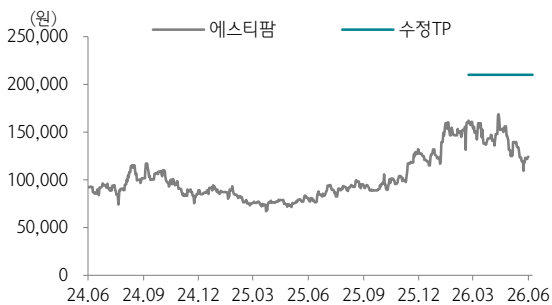
에스케이바이오팜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6	BUY	150,000		
25.11.20	BUY	160,000	-27.89%	-12.06%
25.10.22	BUY	150,000	-20.38%	-13.13%
25.7.7	BUY	130,000	-21.21%	-12.69%
25.4.16	담당자 변경	-	-	-
23.11.10	BUY	100,000	-2.17%	27.90%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에스티팜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3.9	BUY	210,00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6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선아)는 2026년 6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7.29%	2.71%	0.00%	100%

* 기준일: 2026년 06월 14일